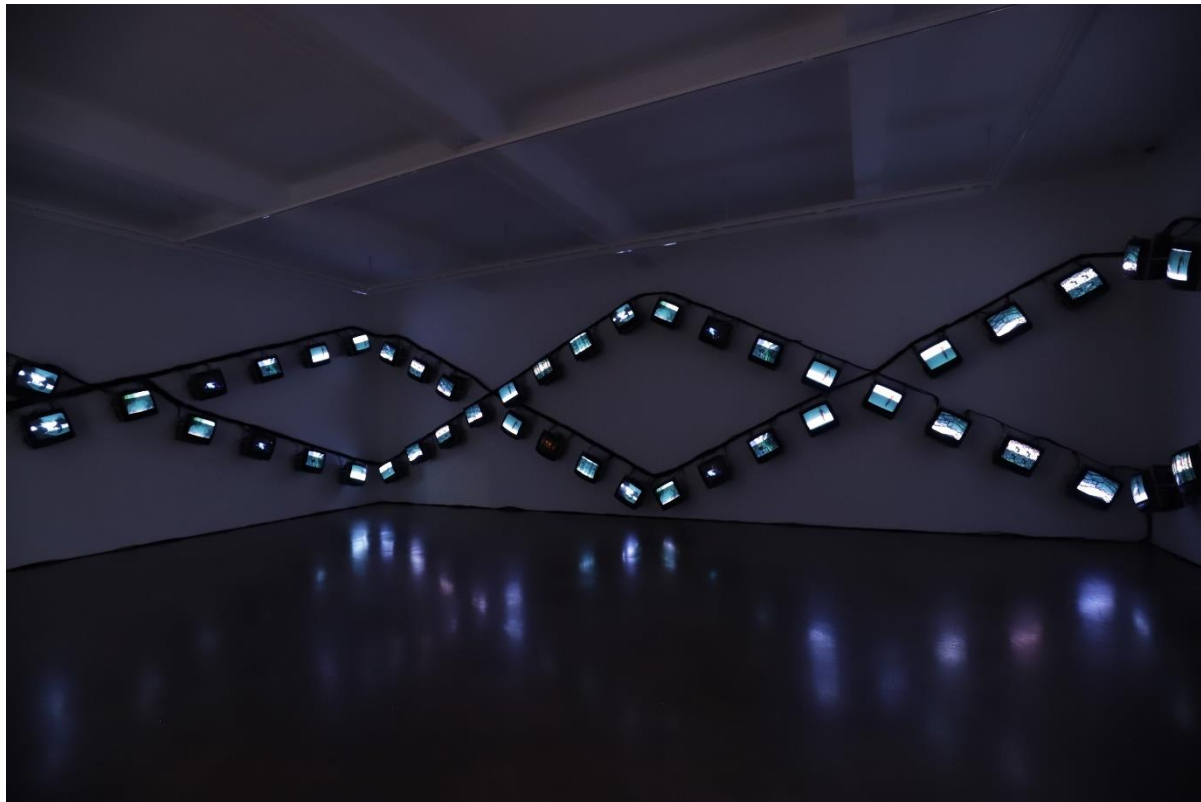


백남준 · 윤석남 · 김길후 3인전  
《함(咸): Sentient Beings》



백남준, <W3>, 1994, TV 모니터 64개, 가변설치(학고재 설치 전경)

전시제목 : **백남준 · 윤석남 · 김길후 3인전 《함(咸): Sentient Beings》**  
전시기간 : 2024년 3월 13일(수) – 4월 20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학고재 신관 지하 2층, 학고재 오룸(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조각, 설치, 총 36 점

○ 담 당 신리사 [lisashin@hakgojae.com](mailto:lisashin@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40313-0420\_백남준 윤석남 김길후 3인전, 함(咸): Sentient Beings

## 1. 기획 의도

학고재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일상 시간은 총천연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모른다. 50년 전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안다. 그러나 그 삶은 흑백으로 보인다. 앞의 것을 역사의 내부자라고 부르고, 뒤의 것을 역사의 외부자라고 부른다. 역사의 내부자로서 우리는 2024년을 총천연색으로 보지만, 이 시대의 의미를 모른다. 다만, 좋은 예술에서 시대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학고재는 백남준(白南準, 1932-2006) · 윤석남(尹錫男, 1939-) · 김길후(金佶熙, 1961-) 세 작가의 예술 역정에서 시대의 의미를 찾았다. 이들의 예술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발화했다. 시대의 의미를 물어 더 나은 내일로 가고자 하는 세 작가의 마음을 '함(咸)'으로 표현했다.

## 2. 전시의 의미

함(咸)은 함께(together)라는 우리말에 들어가는 어근이다. 한자 느낄 감(感)과 통한다. 함은 우리의 영원한 고전 『주역(周易)』의 서른한 번째 괘이다.택산함(澤山咸)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晉)의 사상가 한강백(韓康伯)은 『주역』 서른 번째의 괘까지는 하늘의 도리, 즉 천도에 관한 것이며, 서른한 번째 괘부터는 사람의 일, 즉 인사에 관련한 괘라고 말한다. 그런데 함괘는 예술의 괘이며, 남녀 사랑의 괘이자, 결혼의 괘이다. 인사 중 으뜸은 예술과 결혼이라는 것이다. 사람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과 결혼이라고 볼 때, 예술의 근본 의미는 당연히 화합으로 귀결한다. 함괘의 아래는 태소남(15세 소년)을 상징하는 간괘(艮卦, 산), 위로는 태소녀(15세 소녀)를 상징하는 태괘(兌卦, 연못)로 구성되어 만물의 화평을 상징한다. 15세의 소년과 소녀가 만날 때, 천지가 기뻐하고 만물이 설레기 때문이다.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즐겨 읽었던 성인(공자)은 이 괘와 만났을 때 가장 기뻐했다고 한다. 한편, 간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태는 서구 사회를 상징한다. 따라서 《함(咸): Sentient Beings》 전시는 현대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묻고, 우리의 사유가 현대미술과 만나서 창조할 수 있는 상승효과(synergy)를 의미한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대한 중국학자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는 함괘를 'influence(영향)'와 'wooing(구애)'으로 번역했다.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인생의 의미라고 해석한 것이며, 구애(求愛)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학고재는 전시 주제에 걸맞은 작가로 세 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첫째는 백남준이다. 백남준은 말년에 『주역』을 즐겨 읽었다고 한다. 『주역』에 나오는 함괘의 가치는 소중한 다. <W3> · <구-일렉트로닉 포인트(Sfera-Punto Elettronico)> · <인터넷 드웰러(Internet Dweller)> 세 작품이 출품된다. 64개의

TV 모니터로 이루어진 <W3>는 『주역』의 64괘를 뜻하기도 하거니와 미래의 인터넷 세상을 예견한다. <구-일렉트로닉 포인트>는 1990년 작품으로 냉전 종식 후 펼쳐진 당시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제창한 세계 화합의 가치를 기리는 작품이다. <인터넷 드웰러>는 1994년 인터넷으로 지식정보가 보편화되어 인류가 평등의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는 작가의 믿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백남준은 우리가 세계(우주)와 함께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두 번째 작가는 윤석남이다. 윤석남은 동아시아 여성주의 예술의 최고봉에 오른 작가로 나날이 가치를 더하고 있다. 작가는 2008년에 완성한 연작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를 출품한다. 버려진 나무를 수집하여 버려진 유기견의 형상을 깎아(조각하여) 만들고 그 위에 먹으로 유기견을 그려서(기입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이 연작은 사람과 동물이 동등하다는 뜻을 함축한다.

세 번째 작가는 김길후이다. 김길후는 회화계의 프로테우스로 불린다. 변화무쌍한(protean) 창조성과 실력을 갖추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회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길후의 예술 화두는 '현자(賢者)'와 '바른 깨우침(正覺)'의 의미를 회화로 표현하는 방법에 자리한다. 작가는 그림의 진실한 추구에서 여래(如來)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이미 깃들여 있다. 김길후 작가의 회화 세계에 염화미소(拈花微笑)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김길후의 회화 세계는 현자(부처)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如來)를 발견하리라.<sup>1</sup>

학고재는 '함(咸)'을 'influence'나 'wooing'으로 보지 않고 'sentient beings'로 읽고자 한다. 'sentient beings'는 중생(衆生)과 같은 말이다. 호주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 1946-)가 1975년에 제창한 개념으로, 그는 우리가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각이 있어서 외부 세계를 느끼는 모든 대상은 품계의 구분 없이 우주의 중심으로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뜻을 지닌다. 함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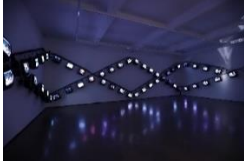
우주가 함께 느끼니 모든 사물이 함께 살아가고, 성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니 온 세상이 화평하다.<sup>2</sup>

<sup>1</sup> 『금강경(金剛經)』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sup>2</sup> 李鼎祚, 『周易集解』(北京: 中華書局, 2023), 152 쪽: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 3. 작품 소개

#### 백남준



<W3>

1994

TV 모니터 64개,  
가변설치

(학교재 설치 전경)

<W3>는 세 개의 'W'를 뜻하며, 'World Wide Web'을 뜻한다. 완만한 각도의 'V'형상과 그 역(逆)인 'A'형상을 교차하여 만들었다. 작품 형상에서 'W'가 위에서 1개, 아래 1개, 좌우 합하여 1개, 따라서 총합 3개가 조합된다. 1994년 작품이다. 백남준은 인터넷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정초한 인물이다. 1974년의 일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CIA와 미군에 의해 먼저 실현된다. 백남준은 '정보 하이웨이', '전자 초고속도로(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개념뿐만 아니라, 핵융합 실현을 통한 인류 해방의 서사를 보여준 적도 있다. 미래 과학이나 혁명적 지식정보를 통한 사회 순환의 구조를 이야기한 적도 있다.

<W3>는 64개의 TV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64개는 64비트를 상징한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 디지털의 세계를 상징한다. 디지털은 0과 1의 이진법으로 구성된다. 동양의 『주역』 역시 음(-- )과 양(—)의 이진법으로 구성된다. 『주역』 64괘는 천리와 인간사의 총합을 의미한다. <W3>에서 TV 모니터가 64개로 이루어진 것, 또한 인터넷이 다가올 인류사의 추동력임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다다익선>(1988), <전자 초고속도로: 미대륙>(1995), <TV 정원>(2000), <TV 붓다>(1974), <TV 첼로>(1976)와 함께 백남준의 예술철학을 대변해 주는 기념비적 작품이다.

<W3>는 포트 로더데일 미술관(포트 로더데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인디애나폴리스, 미국),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미술관(필라델피아, 미국), 산호세 미술관(산호세,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샌디에고, 미국), 카이사 제탈 드 디포시토 미술관(리스본, 포르투갈), 넬슨-에킨스 미술관(캔자스시티, 미국),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호놀룰루, 미국)에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순회 전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에 출품되었다. 이밖에 호림박물관(2021), 서울시립미술관(2016), 소마미술관(2012), 백남준아트센터(2011), 포항시립미술관(2010), 광주비엔날레(2010), 중앙미술학원미술관(2009), 쿤스트할레브레멘(1999-2000) 등에서 전시된 바 있다.



<구-일렉트로닉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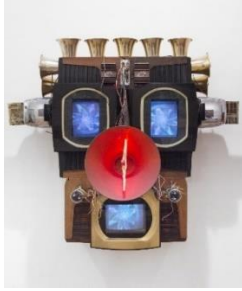
1990

혼합 매체

320x250x60cm

1989년은 세계인을 기쁘게 했으며 슬프게 만들기도 했던 역사적 획기(劃期)였다. 통일 독일이 실현되는 기쁨과 함께 천안문에서 많은 학생이 희생되는 슬픔도 동반했다. 1989년은 냉전 종식의 시작이었으며, 이듬해 이를 축하해 준 지구촌 행사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열렸고, 세계인은 들떴다. 백남준은 낙관주의적 미래관을 견지했다. 대(大) 예술가의 사전에 어둠, 냉소, 비관이라는 단어는 없다. 밝음, 희망, 낙관만이 백남준 세계의 키워드이다. 엄격한 타율(他律)로서의 도덕주의보다 창조적 자율(自律)로서의 개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존중했다. <구-일렉트로닉 포인트>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는 작품이다. 1989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기로 지구촌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구공은 지구(地球)를 의미하는 한편, 창조적 행위와 예술의 샘터로서의 유희(play)를 상징하기도 한다.

작품은 브라질 오이푸투로 플라멩고(2017), 이탈리아 갤러리아 시비카 디 모데나(2013), 프랑스 생테티엔 근현대 미술관(2012, 2004), 이탈리아 팔라소 데레 파페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2002), 이탈리아 카보우르 궁전(2002), 독일 뮤지엄 모더너 쿤스트(1994), 프랑스 에콜 국립 슈페리에 보자르(1994), 이탈리아 에스포시치오니 궁전(로마국립현대미술관)(1992) 등에서 전시되었다.



**<인터넷 드웰러:  
mpbdcg.ten.sspv>**  
1994  
혼합매체  
109.9x131.9x65.9cm

영어 단어 'Anthropomorphism'은 우리말로 '의인관' 내지 '대상의 인간화'로 번역할 수 있다. 신이나 동물, 혹은 사물을 인간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그리스의 제우스신도 우리나라 환웅도 모두 이 관점의 산물이다. 이 단어를 신학에서는 '신인동형동성설(神人同形同性說)'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백남준의 기발한 상상과 만나서 새로운 조각 연작으로 제시됐다. 네오다다 스타일의 조각으로 기념비적인 1988년 작품 <이태백(Li Tai Po)> 을 시작으로 TV로서 인간 형상을 구축한 것이 시작이다.

<인터넷 드웰러: mpbdcg.ten.sspv> 는 인터넷 속에 거주하는 존재자를 가정한다. 그 존재는 기계이지만, 매우 인간적 친화력을 갖추고 있다. 작품의 형상은 사람의 얼굴을 재현하고 있다. 작품의 눈과 입은 TV 브라운으로 표현되었으며, TV 브라운에서 외부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건이 콜라주로 연합되며 여러 사건의 추이가 흘러간다. 각각 인간 소통의 발화(發話)와 수용(受容)을 상징한다. 이 작품의 코는 붉은 네온으로 구성되었으며, 귀는 TV의 핵심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9개의 나팔이 뿔처럼 돌아난 머리에 주목해야 한다. (9는 형[器]의 완성을 뜻하는 우리 고유의 수 개념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터넷은 실제 세계만큼 생생하고 감각적이며 인간과 하나가 된 것처럼 가까울 것이라는 예견을 친근한 익살로 표현해낸 것이다.

작품은 포트 로더데일 미술관(포트 로더데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인디애나폴리스, 미국),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미술관(필라델피아, 미국), 산호세 미술관(산호세,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샌디에고, 미국), 카이사 제랄 드 디포시토스 미술관(리스본), 넬슨-에킨스 미술관(캔자스시티, 미국),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호놀룰루, 미국)에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순회 전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에 출품된 바 있다.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2008  
혼합재료  
가변크기

버려진 나무를 수집하여 버려진 유기견의 형상을 깎아(조각하여) 만들고 그 위에 먹으로 유기견을 그려서(기입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작가는 버려진 유기견 1,025마리를 보살피는 이애신 할머니의 사연을 우연히 신문을 통해 접했다. 그가 운영하는 '애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작가는 큰 충격을 받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애신 할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제작했다. 이 연작은 사람과 동물이 동등하다는 뜻을 함축한다.

주인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반려견이 유기되었을 때, 어떠한 심정일까? 상상할 수 없다. 동물은 불운의 사고나 불가역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만이 자식을 버리고 반려동물과의 의리를 저버린다. 윤석남은 나무를 조각하여 반려견의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천 점 이상의 연작을 완성했다. 저마다 표정이 다르고 개성이 있다. 'sentient beings'는 중생을 뜻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배려와 온정을 주어야 한다는 인문학적 개념이다. 윤석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태와 생물권의 문제를 제기하여 주목받은 우리나라 첫 번째 작가이기도 하다.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대구미술관(2023), 성남큐브미술관(2023), 모란미술관(2020),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19), 서울시립미술관(2015), 해인사(2013), 아르크미술관(2008) 등에서 열린 전시에서 선보여진 바 있다.

## 김길후



### <사유의 손>

2010

캔버스에 혼합매체

227x182cm

김길후는 2000년대 들어서 불학에 정진했다. 당시 정각정행(正覺正行)의 요체에 대하여 어렵פות이 알았다고 한다. 정각정행은 수신(修身)의 요체(要諦)이다. 정각은 바른 자리를 깨달았다는 뜻으로 바른 자리는 유무가 아니다. 그것은 선악도 아니며, 시비도 아니다. 생사도 떠나며, 고락도 불허한다. 일체를 부인함도 아닌 자리로서, 만일 이 바른 자리를 깨닫고(覺) 보면 바른 자리가 곧 부처님의 마음자리이다. 동시에 각자의 마음자리이다. 일체중생의 근본처(根本處)이다. 이를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정행(正行)은 유무와 선악과 시비와 생사와 고락과 허무와 편벽됨이 없는 중도의 행(行)을 이름이니, 곧 집착(執著)이나 편착(偏着) 없는 원만한 행위이자 실천이다.

사유는 정각을 가리키며 작품에서 90도로 기울인 얼굴이 정각을 상징하는 도상이다. 손은 바르고 원만한 행위, 즉 정행(正行)을 상징한다. 매우 두터운 매질과 안료를 섞어 캔버스 화면에 올려서 부조의 느낌을 주었다. 회화임에도 조각적 입체감을 자아내며 인물의 표정은 매우 깊이 있다. 반짝이는 표면의 빛남은 현자만의 엑스터시를 직감하게 한다.

<사유의 손>은 2014년 베이징 화이트박스 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전시된 바 있다.



### <무제>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230x160cm

오른쪽에서 미명이 떠오르니 밝은 아침 해가 거뭇한 칠흑의 밤을 물리치고 있다. 인류사의 많은 그림의 역사와 시사(詩史)에서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길후의 <무제>는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찰나의 순간을 담고 있기에 보는 이는 통쾌한 것이다. '陽'이 '幽'를 물리치는 장면이야말로 '유미입진(由美入眞)'의 경지이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진 사람[賢者]은 세파에 시달려도 무릎 꿇지 않고 언젠가 기필코 빛(진리)으로 어둠(거짓)을 물리친다. 불교의 미륵보살이 그것이며, 『주역』의 복괘(復卦)가 그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福音)이 그것이다.

현자는 오른쪽을 향하여 마주한다. 그윽하게 눈을 감았다. 미명은 현자의 미려한 비익(鼻翼)과 인종을 밝게 물들이며, 희열을 머금은 눈가를 비춘다. 눈가에는 눈물이 이슬처럼 영롱하다.

구유(九幽)처럼 어두운 좌측 화면은 강렬한 마티에르 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자의 안면에 핏줄과 주름이 솟아있음을 감지한다. 고난과 곤경의 역사를 압축한 듯하다. 반면, 오른쪽에서 밀려드는 밝은 미명은 다가올 한낮의 빛, 즉 보조(普照)를 예견한다. 진리는 언제나 강렬한 대조를 이루어 표현되는 것이다. 작품의 마력이 여기에 있다.

## 4. 작가 약력: 백남준

### 백남준

1932 서울 출생

2006 미국 마이애미에서 타계

### 학력

1956 일본 도쿄대학교 음악예술사 학위 취득

### 재직

1978-95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 비디오학과 교수

### 주요 개인전

- 2023 I NEVER READ 1984, 두손갤러리, 서울  
트랜스미션: 너에게 당기를,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사과 씨앗 같은 것,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22 백남준\_Digital Painting, 케이에스갤러리, 서울
- 2020 백남준 티브이 웨이브,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9 백남준: 미래는 지금이다,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2020년 3월 - 8월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20년 11월 - 2021년 1월 시카고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2021년 3월 - 7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2021년 9월 - 2022년 1월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순회)  
백남준 미디어 'n' 미데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8 백남준 인 마닐라, 레옹 갤러리 인터내셔널, 마닐라, 필리핀
- 2017 백남준: 인 캐릭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백남준 회고전, 오이 푸트로 문화 센터,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기념관, 서울  
비상한 현상,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6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 2015 최후의 양식, 가고시안 갤러리, 홍콩  
제임스 코한 갤러리, 뉴욕, 미국  
W3, 학고재, 서울  
TV는 TV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 2014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백남준: 로봇이 되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미국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학고재 상하이, 상하이, 중국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의 백남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13 백남준 인 이탈리아, 갤러리아 시비카 디 모데나, 모데나, 이탈리아  
토마스 솔로몬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 2012 백남준 스펙트럼, 소마미술관, 서울  
백남준: 국제적 시각,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미국  
피아트 플렉스: 성운 플렉서스, 1962-1978, 생테티엔 근현대 미술관, 생프리스트엔자레스, 프랑스
  - 2011 테이트 리버풀, 리버풀, 영국
  - 2010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 2007 백남준과 한국, 환상적인 과도현실, 텔레포니카 재단, 마드리드, 스페인
  - 2006 잘가요 백남준,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백남준 회고전,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오렌지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종이 위의 백남준, 보훔 미술관, 보훔, 독일
  - 2005 핸들에서 우연한 일치, 레커만 갤러리, 쾰른, 독일  
올랭프 드 구주,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 2004 NRW 미술 재단 2004 대상, 포닉스 홀, 도르트문트, 독일  
글로벌 그루브 2004, 독일 구겐하임 재단 미술관, 베를린, 독일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시드니, 호주
  - 2002 플렉서스와 비디오 조각, 빌헬름 렘브루크 미술관, 뒤스부르크, 독일  
전자 저글러 II, 백남준과 비디오아트의 탄생, 카보우르 궁전, 토리노, 이탈리아
  - 2000 백남준의 세계,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미국; 호암미술관, 용인  
그림들, 바젤현대미술관, 바젤, 스위스
  - 1999 플렉서스/비디오, 브레멘 쿤스트할레, 브레멘, 독일
  - 1997 바이런 코헨/ 레니 버코위츠 현대 미술관, 캔자스시티, 미국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넬슨-아킨스 미술관, 캔자스시티, 미국; 호놀룰루 미술관, 호놀룰루, 미국
  - 1996 백남준 다큐멘테이션, 캐널시티 하카타, 후쿠오카, 일본  
비디오 조각상, 전자 전류,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새너제이 미술관, 새너제이, 미국;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 샌디에이고, 미국



- 1995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 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컬럼버스 미술관, 컬럼버스, 미국; 펜실베이니아 예술 아카데미, 펜실베이니아, 미국  
바로크 레이저, 마리에 힘멜파르트 성당, 마우리츠 교회당, 윈스터, 독일  
비디오 조각상, 설치 미술, 아르스 노바 미술관, 튀르쿠, 핀란드  
하이테크 알레르기, 볼프스부르크 시립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 1994 샤먼의 비디오, 팔라초 레알레 아렝가리오, 밀라노, 이탈리아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백남준과의 여행, 포트로더데일 미술관, 포트로더데일, 미국  
백남준 근작 전, 알버트 브나무-필리프 그라비에, 파리, 프랑스
- 1993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리허설 - 독일 파빌리온,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미국  
TV 침대, 물고기 TV, 자라는 달걀, 보이스 박스, 다윈, 1991 년 비디오 상들리에, 넵툰, 화이트 스페이스, 함부르크, 독일  
유목민 예술가 - 독일 파빌리온, 제 45 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 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네치아, 이탈리아  
백남준 최근작,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 1992 백남준 근작 전, 한스 메이어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백남준 비디오때·비디오땅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사진들,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미국  
백남준의 두번째 노베첸토: 21 을 향해가는 전자 예술, 필름과 미디어, 팔라조 텔레 에스포시지오니, 로마, 이탈리아  
체이스 정보벽 영구 실내 조각, 체이스 메트로테크 센터, 뉴욕, 미국
- 1991 비디오 시간 - 비디오 공간, 쿤스트할레 바젤, 바젤, 스위스  
베른트&크리프스 갤러리, 쾰른, 독일
- 1990 별, 한스 메이어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산 도미닉의 회랑,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백남준, TV, 마리카 마라콜다 갤러리, 제네바, 스위스
- 1989 최근 회화와 조각,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미국  
빌바오 미술관, 빌바오, 스페인  
라 피 일렉트로닉, 파리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로봇 가족, 후쿠오카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 1988 메트로봇, 현대 미술관, 신시네티, 미국  
비디오 워크, 1963-88,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영국

- 1987 바이 바이 키플링 드로잉전, 와타리 갤러리, 도쿄, 일본
- 1986 후쿠이 극장 FBC, 후쿠이, 일본
- 1984 25 백만 사람들을 위한 아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 쿤스트-세틀리트, 다다 갤러리, 베를린, 독일  
백남준 비디오전, 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BSO 와 그 너머, 보스턴 현대미술학회, 보스턴, 미국
- 1982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파리국립근대미술관, 퐁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 1981 보이즈, 케이지, 커닝햄, 백남준, 와타리 갤러리, 도쿄, 일본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 1980 미국 새로운 영화제작자 시리즈,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비데아 이로 이로: 종이 TV 와 열대 물고기, 와타리갤러리, 도쿄, 일본
- 1978 백남준 회고전,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존 케이지 헌정 전, 와타리갤러리, 도쿄, 일본
- 1977 프로젝트: 백남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 1976 1946-1976 음악 - 플럭서스 - 비디오 작품, 쾰른 미술협회, 쾰른, 독일
- 1975 물고기 하늘을 날다, 마샤 잭슨 갤러리, 뉴욕, 미국
- 1974 1959-1973 비디오와 비디올로지, 에버슨미술관, 뉴욕, 미국
- 1968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미술관, 뉴욕, 미국  
일렉트로닉 아트 II, 보니노갤러리, 뉴욕, 미국  
일렉트로닉 아트 III: 백-아베 비디오, 보니노갤러리, 인터미디어 협력, 뉴욕, 미국
- 1967 확장하는 예술개념, 고드윈-턴바크 미술관, 퀸즈대학, 뉴욕, 미국
- 1965 백남준: 사이버네틱 아트와 음악, 뉴스쿨, 뉴욕, 미국  
백남준: 일렉트로닉 아트, 보니노갤러리, 뉴욕, 미국
- 1963 음악의 전시-전자 TV, 파르나갤러리, 부퍼탈, 독일  
예술의 통찰력을 확대하다, 풀클래퍼 도서관 아트센터, 뉴욕, 미국

## 주요 단체전

- 2024 함(咸): Sentient Beings, 학교재, 서울**
- 2022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20 21.2 세기, 학교재, 서울
- 2019 한국비디오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장품 기획전 - 굿 애프터 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8 프로그램된: 1965-2018 년 예술 속 규칙, 코드 및 안무,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보태니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장욱진과 백남준의 붓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이야기 사이, 경기도미술관, 안산  
포스트 '88\_서울올림픽 조각 프로젝트, 소마미술관, 서울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접전개화, PMQ, 홍콩, 중국  
광고를 기다리며: 1960 년대에 발견된 장면들, 오르투자 프로젝트, 뉴욕, 미국  
1989 년부터 오늘날까지 인터넷 시대의 예술, 보스턴 현대미술관, 보스턴, 미국  
보는 이들의 편지: 요셉 보이스 X 백남준, 하우 아트 뮤지엄, 상하이, 중국
- 2017 역사를 몸으로 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우리의 밝은 미래- 사이버네틱 환상,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4 차 미디어아트: 포스트휴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차고지 발명가들, 호스펠트 갤러리, 샌프란시스코, 미국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청년의 초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 2016 백남준 10 주기 추모전 <백남준∞플럭서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백남준을 회고하다,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다중시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렉시콘, 가고시안 갤러리, 파리, 프랑스  
미술을 위한 캠페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요셉 보이스 - 백남준, 갤러리 토마스, 뮌헨, 독일  
20 세기 국제 예술, 디아트갤러리, 루가노, 스위스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2016-1966), 화이트채플 갤러리, 런던, 영국
- 2015 주목하라! 영상미술에 대한 새로운 길 안내, 스미스소니언 미술관, 워싱턴 D.C., 미국  
시간의 형태, 가고시안 갤러리, 홍콩  
미국은 보기 어렵다, 휘트니 미술관, 뉴욕, 미국  
TV 는 TV 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4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삼상당대미술관, 항저우, 중국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백남준과의 하루, 경기도미술관, 안산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3 부드러운 교란 - 백남준을 말하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현대 미술작품과 안도 타다오, 본태박물관, 서귀포

- 2012 글로벌 그루브, 일라이와 에디스 브로드 미술관, 이스트랜싱, 미국  
X-사운드: 존케이지와 백남준 이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1 비디오, 미술, 역사, 1965-2010,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세계의 측정, 헤테로토피아와 미술 안에서의 지식공간,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오스트리아  
비디오와 포스트 [주드 알쿠트와 함께], 파리국립근대미술관, 퐁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TV 코문,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미디어스케이프, 백남준의 걸음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0 과거-현재, 퐁피두센터 뉴미디어 콜렉션, 텔레포니카 재단, 마드리드, 스페인  
트릭스터가 세상을 만든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움직이는 이미지, 아티스트 & 필름, 루드비히 박물관, 쾰른, 독일  
5 월의 꽃,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주
- 2009 바이탈 시그널, 1960-70년대 일본과 미국의 비디오아트, 오픈 텔레비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오픈 텔레비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예술은 위대하다!,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독일  
레코드 어게인!,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신화의 전시 - 전자 테크놀로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매크로, 로마에서의 여름, 로마 국립 현대 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팝-업!,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헤셀 미술관, 뉴욕, 미국  
참여의 미, 1950 부터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08 플럭서스 스코어와 지시들, 전환 포인트, 샬러드를 만들다, 덴마크 현대미술관, 로스킬레, 덴마크  
굿모닝 미스터 백남준, 주 영국 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퐁피두센터 뉴미디어 1965-2003, 쉬아두 국립 현대미술관, 리스본, 포르투갈
- 2007 플럭서스, 매듭이 많은 역사, 독일 1962-1994, 안달루시아 현대 미술센터, 세비야, 스페인  
퐁피두센터, 비디오아트 1965-2005, 호주 영상 센터, 멜버른, 호주  
첫 세대, 미술과 움직이는 이미지, 1963-1986, MNCARS, 마드리드, 스페인  
뉴미디어 콜렉션, 1965-2005, 시드니 현대 미술관, 시드니, 호주
- 2006 80년대 비디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비디오, 미술, 역사, 1965-2005, 퐁피두센터 뉴미디어 콜렉션, 마이애미 아트 센트럴, 마이애미, 미국  
뉴미디어 콜렉션, 1965-2005, 퐁피두센터, 타이베이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아무것도, 쉬른 쿤스트할레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독일의 60년대 비디오아트, 브레멘 쿤스트할레, 브레멘, 독일

- 확대된 눈, 취리히미술관, 취리히, 스위스  
 포토-트래픽, 성 제르베 현대 이미지 센터, 제네바, 스위스  
 피에르 후버 비디오아트 콜렉션, 국립 현대 중앙 미술관, 그르노블, 프랑스  
 사랑의 여름, 빈 쿤스트할레, 비엔나, 오스트리아  
 나의 바다를 삼키다,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홈레벡, 덴마크  
 도쿄-베를린, 베를린-도쿄,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제 35 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네덜란드
- 2005 여자, 모더니즘의 변형, 호안 미로 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모더니즘과의 만남, 현대미술관,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  
 프레드릭 크리스천 플릭 콜렉션,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독일  
 오키오 엘렉트로니코에서부터, 리볼리 성, 리볼리, 이탈리아  
 50 주년 도큐멘타, 1955-2005, 쿤스트할레 프리데치아눔, 카셀, 독일  
 믹스 더블, 카네기 미술관, 피츠버그, 미국  
 값없는 링, 프란츠 게르취 미술관, 부르크도르프, 스위스  
 초기의 비디오그래피, 국립현대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2005 신 소장품전, K21 쿤스트 잠물릉, 뒤셀도르프, 독일  
 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 브리즈번, 호주  
 독일 미술 지역, 국립현대미술관,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극장 미술, 빌라 마닌 현대미술센터, 코드로이포, 이탈리아  
 세계적 유산, 카네기 미술관 셀렉션, 컬럼버스 미술관, 콜럼버스, 미국  
 미에 관한 이야기,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 독일  
 원더 월, 네덜란드 미디어 아트 인스티튜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동시대, 후안 마르치 재단, 마드리드, 스페인  
 1965-2005 타임비디오 - 노부 미디어 콜렉션, 풍피두 센터, 라카이사 현대미술 재단,  
 바르셀로나, 스페인  
 슈퍼스타들, 빈 쿤스트할레, 비엔나, 오스트리아
- 2004 빛과 소리, 20 세기 소리의 역사, 국립 조르주 풍피두 예술 문화 센터, 파리, 프랑스  
 독일에서의 비디오 조각품들, 1963 년부터, 국립 박물관, 방콕, 태국  
 하이퍼미디어, 오렌지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아버지가 되는, 아기가 되는, 브롱크스 미술관, 뉴욕, 미국  
 비디오와 코기토, 복구된 비디오콜렉션,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이미지 전과 후, 로마 국립 현대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아그네스 b., - 프락 미디 피레네 콜렉션, 틀루즈, 프랑스  
 비디오아트, 소유의 여행, 레잔티 파운데이션, 룩카, 이탈리아

- 미술 & 인생, 하라 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보물섬, 볼프스부르크 미술관의 10년 컬렉션,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나는 미술을 사랑한다 7,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 2003 비디오 장면들, 싱글채널 작품 - 파멜라와 리차드 크람리히 컬렉션 & 뉴 아트  
트러스트로부터, 뉴욕 현대미술관 PS1, 뉴욕, 미국  
누가 현대미술을 두려워하는가?, 이스라엘 박물관, 예루살렘, 이스라엘  
X-screen, 1960-1970 필름 설치와 액션, 현대미술관, 비엔나, 오스트리아  
최근 인수 작품들, 몬트리올 현대미술관, 몬트리올, 캐나다  
특별할 것 없는, 예술과 창의적 기술을 위한 테크놀로지 재단, 리버풀, 영국
- 2002 레제흐브에서 동물들이 나온다, 국립 조르주 폼피두 예술 문화 센터, 어린이 갤러리, 파리,  
프랑스  
플렉서스와 비디오 조각, 빌헬름 렘브루크 미술관, 뒤스부르크, 독일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 NRW - 뒤셀도르프 포럼, 뒤셀도르프, 독일
- 1999 기하학적인 모양: 현대 미술의 구조, 엘버스와 백남준, 다임러-크라이슬러 컬렉션,  
신국립미술관, 베를린, 독일  
독일의 XX 세기 미술,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독일  
미국의 세기: 미술과 문화 1900-2000 (파트 2),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 1998 행동을 벗어나: 퍼포먼스와 물건 사이, 1949-1979, 로스앤젤레스 현대 미술관 게펜  
컨템포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 1997 조각상, 윈스터에서의 프로젝트 1997, 윈스터, 독일
- 1996 혼합된 픽셀: 백남준과 학생들, 비디오 꿈 1978-1995, 뒤셀도르프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미디어 풍경, 구겐하임미술관 소호, 뉴욕, 미국  
사운드 아트, 베를린 예술원, 베를린, 독일
- 1995 매듭 많은 역사: 독일에서의 플렉서스 1962-1994, 오랑주리 미술관, 파리, 프랑스  
제 1 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인포아트 95,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제 4 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스탄불 예술문화 재단, 이스탄불, 터키  
제 3 회 리옹 비엔날레: 설치미술, 시네마, 비디오, 컴퓨터, 리옹 현대미술관, 리옹, 프랑스
- 1994 홈 비디오의 재정적: 미디어, 조각, 가정, 현대미술 센터, 마이애미, 미국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다,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일본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 창의적인 재료로서의 TV, 1969,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 1993 플렉서스의 정신으로,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조지 바셀리츠, 엔조 쿠치, 울프강 라이브, 백남준, 진 피에르 레이나드, 보르도 현대미술관,  
보르도, 프랑스
- 1991 나는 미술을 사랑한다,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 1990 제 8 회 시드니 비엔날레: 레디메이드 부메랑, 20 세기 미술의 특정 관계들, 시드니, 호주
- 1989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이미지 세계: 미술과 미디어 문화,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 1988 온 트랙: 테크놀로지 안의 미술 전시, 노바 빌딩, 앨버타, 캐나다  
비디오 아트: 확장하는 형태,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호주 비엔날레 1988: 남십자성, 세계 미술에 대한 관점 1940-1988,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미술의 현재 위치, 신국립미술관, 베를린, 독일
- 1987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시간, 유행, 열정: 예술의 외형, 1977-1987,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 문화 센터, 파리, 프랑스  
도큐멘타 8, 카셀, 독일  
텔레비전을 위한 예술, 로스앤젤레스 현대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 1985 비디오 조각, ARCA 현대 미술 센터, 마르세유, 프랑스
- 1984 비디오: 회고, 롱비치 미술관, 롱비치, 미국  
내용: 현시대의 포커스, 허시혼 박물관과 조각공원, 워싱턴 D.C., 미국
- 1983 미국 비디오: 스무 개의 새로운 작품들, 효고현립미술관, 효고, 일본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 1982 60'80 태도/컨셉/이미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비스바덴 플럭서스 1962-82, 플럭서스의 짧은 역사 1, 2, 3 부, 나사우 미술관 비스바덴,  
비스바덴, 독일
- 1981 1981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 1980 눈과 귀를 위해, 베를린 예술원, 베를린, 독일  
파르나스의 미팅 포인트, 1949-1965, 폰 데어 호이트 미술관, 부퍼탈, 독일  
나의 쾰른 성당, 쾰른 미술협회, 쾰른, 독일;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 쾰른, 독일; 루드비히  
박물관, 쾰른, 독일
- 1977 1977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위성 방송, 도큐멘타 6, 카셀, 독일
- 1976 뉴욕-다운타운 맨해튼: 소호, 베를린 예술원, 베를린, 독일  
강: 미시시피의 이미지,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 1975 비디오 아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펜실베이니아 예술 아카데미, 필라델피아, 미국  
제 13 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비디오아트 USA, 상파울루, 브라질  
청각을 위한 시각: 물건들, 콘서트와 시각적 음악, 뒤셀도르프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눈부신 현실, 라이트주립대학교 미술관, 데이턴, 미국
- 1974 현재의 미술 74: 미국 미술 기념 전시회, 케네디 예술센터, 워싱턴 D.C., 미국

- 비디오 테이프, 쾰른 미술협회, 쾰른, 독일  
미술은 미술이다, 70년대 이후의 국제 미술을 향한 관점, 프로젝트 74, 쾰른 쿤스트할레,  
쾰른, 독일  
제 5 회 국제 필름 실험 대회, 크노케 헤이스트 카지노, 크노케 헤이스트, 벨기에  
1973 크림-유럽 아방 가르드 1950-1970 컬렉션, 튀빙겐 미술관, 튀빙겐, 독일  
회로: 비디오 초청, 에버슨 미술관, 시러큐스, 미국  
1972 시네프로브: 주드 알쿠트와 백남준과 함께한 저녁,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1971 뺑소니 상영 (주드 알쿠트와 협업), 리졸리 시사회실, 뉴욕, 미국  
1970 해프닝과 플럭서스, 쾰른 미술협회, 쾰른, 독일  
1969 전기 미술, UCLA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창조적 매체로서의 TV,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 뉴욕, 미국  
다른 아이디어들, 디트로이트 미술관, 디트로이트, 미국  
1968 한 컬렉션: 현대미술,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 쾰른, 독일  
인공두뇌학의 뜻밖의 즐거움: 컴퓨터와 미술, 현대미술학회, 런던, 영국  
기계: 기술시대의 끝에서,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1967 아티스트로서 영상메이커, 유태인 박물관, 뉴욕, 미국  
빛/움직임/공간,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궤도 위의 빛,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 뉴욕, 미국  
1966 키네틱과 프로그램된 미술,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미술관, 프로비던스, 미국  
1965 조율된 미술, 보스턴 현대미술관, 보스턴, 미국  
1962 세계 도형 악보들, 미나미 갤러리, 도쿄, 일본

## 수상

- 2001 빌헬름 렘브루크 상, 뒤스부르크, 독일  
현대조각 부문 공로상, 국제 조각 센터, 해밀턴, 미국  
2000 내셔널 아트 클럽, 뉴욕, 미국  
금관문화훈장, 서울  
1998 괴테메달, 바이마르, 독일  
교토상 예술 철학 부문, 교토, 일본  
1995 일본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후쿠오카, 일본  
호암상 예술 부문, 서울  
1993 제 45 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베네치아, 이탈리아  
유네스코 피카소 메달, 파리  
1991 고슬라 카이저링 상, 고슬라, 독일



스코히건 메달 비디오 설치 부문, 매디슨, 미국  
1981 빌 그로만 상, 베를린, 독일

###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테이트 컬렉션, 런던, 영국  
벨기에 왕립미술관, 브뤼셀, 벨기에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파리, 프랑스  
쿤스트할레 즈 킬, 킬, 독일  
비스바덴 헤센 주립 박물관, 비스바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박물관, 슈레스비히,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컬렉션, 베를린, 독일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카보우르 궁전, 토리노, 이탈리아  
베라르도 컬렉션 박물관, 리스본, 포르투갈  
아테네 국립 현대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미국  
허시혼 박물관과 조각공원, 워싱턴 D.C., 미국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뉴욕, 미국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라틴 아메리카 근대 미술관, 워싱턴 D.C., 미국  
애클랜드 미술관, 롤리, 미국  
스마트 아트 박물관, 시카고대학교, 시카고, 미국  
스미스 칼리지 박물관, 보스턴, 미국  
스튜어트 컬렉션, 샌디에이고, 미국  
헤셀 미술관, 바드칼리지, 애넌데일-온-허드슨, 미국  
데이턴 미술관, 데이턴,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호놀룰루, 미국  
호주 국립 박물관, 캔버라, 호주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5. 작가 약력: 윤석남

### 윤석남

1939 만주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경기도 화성에서 작업

### 학력

- 1984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수료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 수료
- 1967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수료

### 주요 개인전

- 2023 제 23 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윤석남, 대구미술관, 대구
- 2022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
- 2021 내가 되는 그림,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윤석남: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 역사를 뒤흔든 여성 독립운동가 14 인의 초상, 학고재, 서울
- 2019 벚들의 초상을 그리다, OCI 미술관, 서울
- 2018 윤석남, 학고재, 서울  
해움미술관, 수원
- 2017 기억공작소 II: 사람과 사람 없이 - 윤석남, 봉산문화회관, 대구  
마침내 한 잔의 물이 되리라, 자하미술관, 서울
- 2016 빈 방, 학고재 상하이, 상하이, 중국
- 2015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2015 SeMa Green: 윤석남 - 심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학고재, 서울
- 2011 핑크룸 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09 부산아트센터, 부산  
학고재, 서울
- 2008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4 열린화랑(김재선갤러리), 부산
- 2003 늘어나다, 일민미술관, 서울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1998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1997 빛의 파종,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아트 스페이스 서울, 서울; 학고재, 서울
- 1996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조현화랑, 부산
- 1993 어머니의 눈, 금호갤러리, 서울
- 1982 미술회관, 서울

**주요 단체전**

- 2024 **함(咸): Sentient Beings, 학고재, 서울**  
2024 부산비엔날레(예정), 부산
- 2023 **신/여성의 탄생, 자하미술관, 서울**  
내가 그린 여자들, 한국여성재단, 서울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남  
시간의 두 증명 - 모순과 순리,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2022 **움직이는 달 - 다가서는 땅, 제주비엔날레, 제주**  
밀도, 반도문화재단, 화성  
우리, 할머니, 탈영역우정국, 서울  
옵니버스, 뮤지엄 산, 원주
- 2021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 덕수궁 정원 및 전각, 서울**  
오노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이마 픽스 2021, 일민미술관, 서울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리컨스트럭션, 카르마 인터내셔널, 취리히, 스위스  
한국 초상화 기법의 유사성과 그 족적,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바람보다 먼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 2020 **BMA 소장품 하이라이트 2 -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우리가 지나쳐 온 그녀들의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ECC 대산갤러리, 서울  
내 나니 여자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조각의 아름다움, 모란미술관, 남양주
- 2019 **제 6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공생도시, 안양파빌리온, 안양**  
역단(易斷)의 풍경, 자하미술관, 서울  
미술여행 2 여름프로젝트 - 종이 충격,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한국근현대조각 100주년\_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 소화(素畵) – 한국근현대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8 세계의 초상화들: 한국, 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미국  
낙원의 이편, 안양박물관, 안양  
오늘의 여성미술,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17 윤석남, 방정아 – 두 엄마,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보고 싶은 얼굴, 이한열기념관, 서울  
아시아 여성미술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2016 한반도의 사실주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뮤지엄 카젠 아트센터, 워싱턴 D.C., 미국  
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조각적 전회, 모란미술관, 남양주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표현, 도쿠시마시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 2015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어머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용한점집, 자하미술관, 서울  
미술관 동물이야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2014 마음의 기억 – 이너 보이스, 단원미술관, 안산  
레트로\_’86~’88 “한국 다원주의 미술의 기원”, 소마미술관, 서울  
비엔날레 아카이브 – 한국 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 년, 부산문화회관, 부산  
제 10 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한국의 초상미술 – 기억을 넘어서,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4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다리, 연결된 미래, 울산교, 울산  
선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누락된 기록 –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기억,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마음해인아트프로젝트 2013, 해인사, 합천  
제 3 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2013 정전 60 년 특별 기획전 백령도 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어느 노병의 이야기 – 60 년의 기억, 130 년의 우정, 아시아하우스, 런던, 영국  
인물 파노라마,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VI – 여성주의,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가족이 되고 싶어요 – 반려동물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탐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2 리버풀 비엔날레 테라갤럭시아, 리버풀 존무어대학 코퍼러스힐 빌딩, 리버풀, 영국  
우먼 인-비트윈: 아시아 여성작가 1984-2012,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기획 –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모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1 창·창·인·생 創·創·人·生, 경기도미술관, 안산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조각가의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제 1 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가인(佳人) – 동양미술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비형식의 논증, 자하미술관, 서울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2010 워킹 맘미아: 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국립여성사전시관, 서울  
한국드로잉 30 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춘추(春秋), 학고재, 서울  
강진 셀라돈 아트 프로젝트 2010\_강진에서 청자를 만나다,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9 거울아, 거울아 – 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과천  
루씨와 오렌지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서울  
2009 평화미술제 – 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예술의 새로운 시작 –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8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페미니즘 여성작가 3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이중섭미술상 20 년의 발자취 – 역대 수상작가 20 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데일리 라이프 인 코리아, 퀸즈갤러리, 방콕, 태국
- 2007 경기, 1 번 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여성·일·미술 –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상:상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05 광복 60 주년기념 한국미술 100 년 (1 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쿨&웜, 성곡미술관, 서울
- 2004 금호미술관 개관 15 주년 기념전, 시선의 발현과 전개, 금호미술관, 서울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일상이 담긴 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정지와 움직임,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지겐-서울-지겐-서울, 지겐란트박물관, 지겐, 독일  
룩 & 씨 – 엡솔루트 랜드스케이프, 성곡미술관, 서울

- 평화선언 2004 세계 100 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3 인의 페미니즘, 한국미술관, 용인  
블루,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보더라인 케이스스 경계선상의 여성들, A.R.T., 도쿄, 일본
- 2003 매달다,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우리시대 삶과 해학,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독 여성 작가 교류전 - 여자의 열두 계절,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조국의 산하 - 반전 · 평화,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현대조각특별전, 조각이란 무엇인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2 제 2 회 여성미술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민족미술 20 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 2001 오월정신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상과 창조 III, 가족 - 한국현대미술, 가스가이시민문화회관, 가스가이, 일본
- 2000 제 3 회 광주비엔날레: 인간(人+間),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미술관, 서울  
제 12 회 시드니 비엔날레, 뉴사우스웨일스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 1999 99 여성미술제 - 팔쥐들의 행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90 년대 미술의 정황, 엘렌 김 머피 갤러리, 서울  
Korea+JAALA - 동북아와 제 3 세계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중섭미술상 10 년의 발자취 - 역대 수상작가 10 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몽유금강夢遊金剛\_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 년, 일민미술관, 서울
- 1998 세계인권선언 50 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 1 회 타이베이 비엔날레 '욕망의 장소',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전통과 새로운 형태: 한국현대미술, 하트퍼드 대학 조셀로프 갤러리, 하트퍼드, 미국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기념전, 위안부 기념관, 나눔의 집, 광주  
서울올림픽 10 주년 기념 야외조각 심포지엄, 올림픽조각공원, 서울
- 1997 우리시대의 초상 - 아버지, 성곡미술관, 서울  
대결 III, 벨란센터, 토리노, 이탈리아
- 1996 제 8 회 조국의 산하, 강 - 내일로 흐르는 삶의 도도함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90 년대의 한국미술 - 등신대(等身大) 이야기,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일본  
제 2 회 아시아 태평양 현대미술 트리엔날레, 퀸즈랜드미술관, 브리즈번, 호주

- 아시아의 현대미술 – 전통과 긴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미국
-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1970-1990: 근대의 초극, 2부 모더니티 · 대중 · 표현, 금호미술관, 서울
- 1996 인간의 해석, 갤러리사비나, 서울
-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 노화랑, 서울
- 1995 한국현대미술 15인 – 호랑이의 꼬리, 팔라초 벤드라민 아이 카르미니, 베니스, 이탈리아
- 제 6회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유럽 – 동아시아, 슈드베스트엘비포럼, 슈투트가르트, 독일
- 한국(韓國), 100개의 자화상(自畫像), 조선(朝鮮)에서 현대(現代)까지, 서울미술관, 서울;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 싹, 아트선재센터, 서울
- 한국 미술 '95 질 · 량 · 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해방 50년 역사미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프리미티비즘, 모란미술관, 남양주
- 95 한국 여성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한국현대미술,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 1994 자존의 길 II, 금호갤러리, 서울
- 기술과 정보 그리고 환경의 미술, 엑스포 과학공원 재생조형관, 대전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시회 –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민중미술 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여성, 그 다름과 힘, 한국미술관, 서울
- 1993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 퀸즈미술관, 뉴욕; 금호갤러리, 서울
- 기대와 예감, 박영덕화랑, 서울
- 1992 제 6회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 1988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 그림마당 민, 서울
- 1987 제 1회 여성작가 40인의 그림잔치 –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그림마당 민, 서울
- 87 인간, 그로리치화랑, 서울
- 1986 제 2회 시월모임, 반에서 하나로, 그림마당 민, 서울
- 1985 제 1회 시월모임, 관훈미술관, 서울
- 1982 제 1회 82 인간 11인, 관훈미술관, 서울

## 수상

- 2022 제 23회 이인성미술상, 대구미술관, 대구
- 2019 국민훈장 모란장, 여성가족부, 서울
- 2015 제 29회 김세중조각상, 재단법인 김세중기념사업회, 서울

- 2007 제 4 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서울
- 1997 국무총리상, 서울
- 1996 제 8 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사, 서울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
- 경기도미술관, 안산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아르코미술관, 서울
- 금호미술관, 서울
- 리움미술관, 서울
- 일민미술관, 서울
- OCI 미술관, 서울
-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올림픽공원, 서울
- 쌈지스페이스, 서울
- 나눔의 집, 광주
- 테이트 컬렉션, 런던, 영국
- 벨란센터, 토리노, 이탈리아
- 오리건주립대 조던슈니처미술관, 오리건, 미국
- 퀸즈랜드 미술관, 브리즈번, 호주
-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 후쿠오카시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버거 컬렉션, 홍콩
- 도쿠시마시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 도치기현립미술관, 우츠노미야, 일본
- 미에현립미술관, 츠, 일본
-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스타트 뮤지엄, 상하이, 중국



## 6. 작가 약력: 김길후

### 김길후

1961 부산 출생

현재 대구 및 베이징에서 거주하며 작업

### 학력

1996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1988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21 혼돈의 밤, 학고재, 서울

2019 유령을 먹어치운 신체,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갤러리 89, 파리, 프랑스

2018 존재와 허무, 송왕당대미술문헌관, 베이징, 중국

2017 본진(本眞), 칭후에 아트 스토어, 798 예술구, 베이징, 중국  
1000 페이스 델라 루나, 미니 갤러리, 아시지, 이탈리아

2016 기념비적 인상,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4 심인(心印) - 김길후의 회화, 화이트박스 아트센터, 베이징, 중국

2011 깊고 깊은 어둠, 갤러리 터치아트, 파주

2008 찬란한 슬픔,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 대구

2005 비밀의 화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주요 단체전

2024 함(咸): Sentient Beings, 학고재, 서울

2023 의금상경(衣錦尙綱), 학고재, 서울

2022 개관 45주년 기획전: 달의 마음, 해의 마음, 선화랑, 서울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목포, 진도

2020 제 5 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조각 - 가법거나 유연하거나, 성산아트홀, 창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新취기시대\_또 다른 조우, 연미산자연미술공원 및 금강자연미술센터,  
공주

영원한 것은 없다, 브이센터 더 라이브 뮤지엄, 서울

2019 저항예술제: 저항예술! 점거하라! 연대하라!,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

- 2019 대한민국 검찰, 스페이스 유니온, 서울
- 2017 단체전, 칭후에 아트 스토어, 798 예술구, 베이징, 중국
- 2016 올드 앤 뉴: 법고창신(法古創新) – 현대작가, 간송을 기리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선(線) – 삶의 비용,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 중국 당대예술특별전, 하워드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 2015 하늘을 맞이하라, 신에게 복종하라, 체코-중국 컨템포러리 아트 뮤지엄, 베이징, 중국  
제 2 회 중산국제아트엑스포: 미래의 예술, 중산, 중국  
지금, 여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대구-L.A., 가이아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공간 – 세 가지 방법,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4 시간 그리고 표면, 봉산문화회관, 대구  
존재의 꿈,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마음의 연금술, 에다소소 갤러리, 청도
- 2013 매트릭스 툴,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2 비욘드 멀티플, 봉산문화회관, 대구  
뉴 핫: 한국 · 중국 미술교류전, 798 스페이스; 갤러리 TN, 베이징, 중국
- 2011 기억의 콜라주 – 한국 동시대 미술, 소카 아트센터, 베이징, 중국  
또 다른 풍경,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온전한 거리, 북시티, 파주
- 2008 올드 앤 뉴 하모니, 수성아트피아, 대구  
블루닷 아시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7 새로운 한국회화, 전주문화예술회관, 전주
- 2004 삶의 풍경,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표현미술의 새로운 방향, 우봉미술관, 대구

## 수상

- 2024 제 15 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미술) 부문, 서울문화투데이, 서울
- 2021 제 11 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작가상,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서울
- 2005 SAC 2005 젊은 작가상, 예술의전당, 서울